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5월 19일(주일) 제1492호



함께 부르는 회복의 노래!

5월 15~16일 러브소나타 효고 '회복'
현장 2,635명, 온라인 3,917명, 일본인 643명 결신

한국과 일본이 함께 회복의 노래를 불렀다. 34번째 러브소나타 효고가 지난 5월 15일(수)과 16일(목)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회복'을 주제로 열렸다. 러브소나타 집회에 현장 참석자 2,635명, 온라인 참석자 3,917명이 참가했고, 일본인 참가자 64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러브소나타 효고의 포문은 지난 15일(수) 고베동부교회에서 진행된 회복 세미나가 열렸다.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일본 교회 성도, 한국 목회자 및 리더십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타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몽골 키즈홈 서포터팀 대표)가 강의를 했다. 이기원 목사는 "교회는 통합적 방법으로 성도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

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받은 사랑을 전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같은 날 저녁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는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 나이트' 집회가 있었다. 일본 교회 성도 1,066명, 한국 성도 632명, 온라인 1,732명이 참석했다. 스즈키 마사야 전도사(무코노노 메구미교회, 청소년 사역자)가 설교하고, LOVE OBI, 이삿 재팬, CCM 가수 지미션, 웅기장이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스즈키 마사야 전도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의 경험을 나누

고 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목) 오전에는 고베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에서 리더십 포럼이 진행됐다. 한국과 효고 각 분야(정재계, 교육, 언론, 의료 등)에서 활동하는 리더십 90명(한국측 40명, 일본측 50명)이 참석했다. 이인용 장로(당회서기), 가네코 미치히토 목사(일본 참의원, 사회복지법인 '굿사마리안' 이사장)가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고베 문화홀 대홀에서 러브소나타 효고 집회가 막 올랐다.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 개그우먼 조혜련, 가수 범키, 팜페라 가수 신텔라,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가스펠보컬밴드 CRUX, Lalo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회복'을 주제로 전했다. 이 목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관련 기사 4-5면).

/ 홍하영, 김다애 기자

마리아행전 '엎드림'

6월 12~14일 오전 10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엎드림'을 주제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막 오른다. 6월 12일(수)과 13일(목)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과 각 캠퍼스 분당, 14일(금)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모든 캠퍼스가 모여 함께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12일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의 엎드림', 13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간구의 엎드림', 14일 이한영 부총장(아신대) '예배의 엎드림'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2024 마리아행전 '엎드림' 참가신청은 토요일예배와 일요일예배, 수요일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및 전화 접수,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문의: 서빙고(02-3215-3667, 3201), 양재(02-570-7277),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5월 18~19일 '입양위탁홍보주간'

5월 18일(토)과 19일(일)은 입양위탁홍보주간이다.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입양위탁팀'에서 국내 11개 캠퍼스 로비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입양'과 '위탁'에 대해 알려준다. 보육원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선한 율타리사역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고봉익 팀장(제이홈입양위탁팀)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입양위탁홍보주간에 가정의 문을 열고, 입양과 위탁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창화 팀장(선한율타리사역팀)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아 돌보는 사역에 순종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달려라풍당 마지막 일주일!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5월 26일(일)까지 이어진다.

달려라풍당 참가신청은 5월 25일(토)까지 할 수 있다.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modooat)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활동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들은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5).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라이선싱에 쓰인다.

아주 특별한 '인생네컷'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204명 결신



부모와 자녀들이 아주 특별한 인생네컷을 촬영했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인생네컷' (이하 인생네컷)이 지난 5월 13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분당에서 막 올랐다. 전도대상자 320명, 초청자 246명, 봉사자 60명, 테이블리더 65명이 참석했다. 전도대상자 무려 20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다.

인생네컷은 식사 및 나눔, 환영 영상 및 공연, 메시지, 결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버 박위, 가수 범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자녀들에게 생명마저 내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를 원한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관련 기사 6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소위 ‘안티(anti) 기독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주동적 역할을 했고,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부 사도들 외에 모두 흩어졌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도망간 곳이 다메섹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처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를 가야 합니다. 당시에 일주일 이상 여행해야 하는 지역인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일을 계획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기획한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집행한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부르신 이유

1~2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만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지나친 열심을 보인 것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모두 옳다고 합리화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격분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을까요? 그가 가장 강하고, 강력한 대적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핍박자인 바울까지도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셨고, 축복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대적자를 대리자로, 핍박자를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3-6절).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비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는데,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일 뿐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통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도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비춘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때로 초자연적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강렬한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비추었습니다.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매우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질문도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닌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은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키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찾아오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강렬한 빛으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셨지만,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

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 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행 26:15~17).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복수는 은혜의 복수입니다. 더 큰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대리자로, 핍박자를 증인으로, 한 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핍박자를 자신의 증인과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대적점에 있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인격과 인내, 사랑과 포용으로 나와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을 한 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받는 자!

주님께서 야나니아에게 앞을 보지 못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11~12).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야나니아를 통해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야나니아에게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갖 해를 끼쳤고, 이곳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나니아의 대답은 당시 바울의 핍박을 받았던 모든 성도의 마음을 대변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쨌면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음에도 모릅니다.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게 된 것도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된 거라고 여기고, 고소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나니아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시니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듯 야나니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야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 줄 것이다’”(15~16절).

야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일곱 분 중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은 어릴 때부터 사회지도층,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당시 그는 서양 선교사들을 나라를 삼키려는 음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무엘 마펏 선교사의 얼굴에 돌을 던져서 턱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펏 선교사님은 꾸준히 복음을 전해서 1894년 22명에게 학습,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양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장대현교회입니다. 장대현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기풍이 강패들을 동원해서 건축 현장을 부수버렸습니다. 그러나 마펏 선교사는 성도들을 달래고 인내하며 그들을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그래도 이기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지만 그래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청일전쟁 당시 원산으로 피신가 있을 때 그의 앞에 선교하던 스웨덴 선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기풍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우렛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그해에 장대현교회에서 한국 교회 최초의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돌이켜서 복음 증거자, 증인으로 세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분별력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반대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때로 오해하고, 핍박했던 이들을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과학주의

과학주의의 우연과 하나님의 은혜

과학주의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며, 이들은 기본원소들의 집합체다. 과학주의는 물질 외에 존재하는 것은 없으므로 ‘하나님’이나 ‘영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가 없다. 과학주의에서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자연법칙’에 지배된다. 첫째, 자연법칙은 의도적인 창조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연법칙 자체에는 목적성이 없으며, 그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둘째, 자연법칙은 불변하고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도 자연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집합체이므로 생물과 같은 방법으로 탐구되고 설명해야 한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열망, 감정, 미학적 판단, 도덕적 선택도 물리화학적 반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 활동의 원인은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등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 활동의 원인은 영혼이나 정신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등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1933년 과학주의자는 ‘인본주의자 선언’에서 자연법칙에 종교적 인본주의의 사상을 더했다. 즉, 종교적 사상이 적절하지 않지만, 선한 삶의 추구는 인류의 중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과학적 자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종교적인 구조와 신앙체계를 가진다.

과학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을 설명할 때 문제가 생긴다. “원소들의 집합체가 어떻게

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가?”, “원자들 집합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단순히 물질의 집합체일 뿐인 인간은 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궁금해할까?” 과학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 삶의 목적 등을 밝혀 줄 아무런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인격적인 물질세계에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믿음보다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장난감 통으로 백사장에 파놓은 큰 구멍에 계속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었다. 신기해서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오늘 모든 바닷물을 이 구멍에 담을 거예요.”

필자가 오래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를 방문해 연구할 때 일이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앞에 한 백인 친구가 앉아있었다. 내게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고는 자신은 불교도라고 했다. 참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식사를 마치고 나

오려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나?”고 그가 물었다. 자기 이름은 스트브라고 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뇌신경학을 연구하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내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허무주의로 좌절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음과 그 이후 겪은 감격스러웠던 영적 체험을 간증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영적 체험과 기도 응답을 얘기할 때마다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뇌에서 일어난 변화의 영향과 우연으로 설명했다. 인내심으로 변론했지만, 계속되는 반론에 짜증이 났다.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한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나는 점심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는데 너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유기물질, 수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황, 탄소 등을 먹은 것 같다. 너는 계속해서 분해된 구성원소들이나 씹어 먹어라. 나는 감사함으로 맛을 음미하며 즐기겠다”라고 말했다.

말 끝마다 열심히 반박하던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놀라운 통찰력의 비유다”라고 말했다. 잠시 뜬눈을 들어보니 고백했다. 사실 자기 가족과 친척들은 독실한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믿음이 강해지는 분위기가 싫어서 반항심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3년 사이 일어난 4건의 치명적인 교통사고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때는 단순히 운이 너무 좋았을 따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지하게 돌이켜

보니 그러기에는 너무 큰 우연 같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운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온갖 지식으로 분해하며 난도질했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에 오히려 내가 놀랐다. 다음 날 반갑게 인사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다.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온 많은 것들과 감사한 기도응답들을 스티브가 짧은 지식과 이성으로 분해 해왔던 것처럼 분석하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받은 은혜는 분해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다. 인류는 과학의 급진적 발전에 도취 되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학주의)을 바라본다. 과학주의가 세상을 진보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

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과학주의의 주장은 백사장 작은 구멍에 바닷물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아이의 생각 그 이상이 아니다. 과학주의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



성태연 집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수컷 쥐 두 마리로 새끼 쥐를 만드는 과학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창세기 11:6)에서 하나님은 아빤 차지만 인류의 오판이었던 건설 프로젝트를 보시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건설을 중단시킨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일하면 적어도 이 지구에서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계획과 목적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도록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새끼 쥐를 만든 과학팀에 관한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바벨탑이 떠올랐다. <네이처>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일본 과학팀의 연구를 설명했다. 먼저 두 마리의 수컷 쥐 꼬리에서 피부 세포를 채취한다. 이후 이를 어떤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인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전환했다. 과학자들은 이 줄기세포를 여성 세포로 변형시키는 약물로 처리했다. 그다음 차례로 난자기

능을 하는 세포를 만들고 수정시켜 암컷 쥐에게 이식시켰다. 99% 실패율을 거치고 마침내 두 마리의 유전학적 아빠 쥐를 가지고 엄마 쥐 없이 살아있는 새끼 쥐 몇 마리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새끼 쥐들은 자라나 정상적으로 번식까지 했다.

기증자의 난자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생식 과정에서 엄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섭도록 터무니없는 생각은 잠시 접어보자. 과학자들들은 정상적인 번식 생물학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꿈이 실현되는 돌파구로써 이 기술이 도래할 것을 오랫동안 예측해왔다. 이 방법이 가지는 엄청난 실패율과 심각한 비효율성 때문에 인간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증명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적 우대 정책 세트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분명히 포유류 종에서 같은 성별의 두 개체로부터 살아있는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고인이 된 공상과학 소설가인 마이클 크라이튼의 말이나 적어도 그의 소설 <쥬라기 공원>을 영화로 각색한 내용을 인용할 만하다. 그 영화에서

제프 골드블럼이 맡았던 인물은 “당신 과학자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너무 몰두한 결과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멈추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의 요점은 과학은 단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할 수 없다. 과학은 기술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윤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학이나 과학적 신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을 남겼다.

“우리는 소름 끼치게 단순한 방식으로 기관을 제거하고 그 기관이 기능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가슴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서 미덕과 진취성을 기대한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으면서 우리 가운데 반역자들이 나오면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말을 거세시켜 놓고 그 말이 새끼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

그는 이 글을 특히 교육에서 가치 판단을 없애려는 운동이었던 ‘주관주의’에 관해 썼었다. 이 글은 생식 과정에서 하나의 성을 제거하려는 바벨탑 같은 프로젝트에도 섬뜩하게 잘 적용된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

다. “왜 우리는 이 기술을 조사하는가?”, “이 기술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덜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성관계와 생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의무’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바벨탑을 쌓고 있다. 과학이라는 공유된 언어와 기술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관찰했듯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제거하고, 생물학이 나타내는 사람과 상호보완성을 차갑고, 냉소적인 기술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노력을 “인간 폐지”라고 불렀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여성 폐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기독교 신앙과 문화, 신학, 변증론 전문 강사),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업스트림 팟캐스트 호스트,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WORLD,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서밋 미니스트리 등에 정기 기고) 원문: breakpoint(20230330)



효고 현장에서

효고는 이제 회복의 땅!

일본은 경제력도 좋고,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의 영혼이 매마르고,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산다. 일본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러브소나타 효고가 울려 퍼진 이유다.

고베 문화홀을 찾았다. ‘GOD Bless you’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안내팀이 보였다. 스태프와 눈이 마주쳤는데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그 덕분에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다.

김정희 권사(한강공동체)는 러브소나타 효고 안내팀으로 섬겼다.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에서도 안내팀을 섬겼는데, 올해도 안내팀에 배정됐다. 그녀가 안내팀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안내팀은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며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매년 안내팀을 섬기고 싶습니다. 올해도 안내팀에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가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게 큰 감격입니다. 일본 땅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과 어둠이 걷히고,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가스펠 나이트 집회 현장도 찾았다. LOVE OBI, 잇배 재팬, 지미션, 웅기장이의 찬양이 이어졌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는 성도들도 보였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한국 봉사자들이 일본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도 인상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일본인 차세대 참가자가 화관을 쓰며 웃고 있다.

깊었다. 눈물로 기도하던 김재란 선교사(경배와찬양)가 고백했다.

“가스펠 나이트 집회에 오기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큰 아픔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꼭 안아주고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매처럼 큰 아픔을 가진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일연합기도회에도 참석했다. 기도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봉

사자들이 함께 일본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다. 기도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

황상윤 장로(송파B공동체)는 기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꿈을 꿔다.

“사람들의 마음이 걱정과 우울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좋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웨에 가기를 싫어했던 요나처럼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러브소나타 본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이 북적였다. 그들의 눈빛에서 부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챔버, 신텔라, CRUX, 범키, 개그우먼 조혜련,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의 특선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의 함성이 고베 문화홀을 가득 메웠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회복’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참가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소망하며 결신서를 작성했다. 머리에 화관을 쓰고, 형광봉을 들고 회복의 세레모니도 이어졌다.

장수정 성도(오사카온누리교회)는 러브소나타는 비신자는 물론이고, 일본 크리스천들에게도 위로와 회복 그 자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러브소나타가 채워줬다고 고백했다.

“러브소나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지만,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에덴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일본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홍하영, 김다예 기자

기도하는 사람들

청년이 일본 청년들을 위해

저는 청년의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이 좋은 예수님을 일본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러브소나타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청년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일본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깨어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일봉사자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청년들과 일본의 청년들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각 나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태리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한국 성도가 일본 교회를 위해

지난해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참석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자리에 섰는데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먼저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일본 땅과 일본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본이 변화되고, 일본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역에 함께 하고 싶어서 러브소나타 ‘효고’에도 참석했습니다. 러브소나타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일본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천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브소나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결신자들이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김윤희 성도
(영종온누리교회)

교사가 일본 다음세대를 위해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미전도종족’이라 불리는 한국의 다음세대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자아’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아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은혜의 자아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길러주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줍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일본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자아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만날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을 책임지고, 일본을 회복시킬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교회에 다음세대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박혜연 교사
(양재 차세대)

일본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그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 (1888~1960)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교회를 지켜주소서. 일본을 구원해 주소서. 세계에 평화를 하라주소서.”

이 기도는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던 어느 남자의 유언이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이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가가와 도요히코(1888~1960)’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1888년 7월 10일 태어났다. 고위공직자 아버지와 게이샤(술자리 흥을 돋우는 직업)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유하고 행복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네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림병으로 죽고, 어머니마저 이듬해 1월 죽었다. 다섯 살에 고아가 된 가가와 도요히코는 아버지의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 살았다. 양모의 학대와 의붓형제들과 친구들의 놀림, 온갖 천대를 받으며 지냈다. 외로웠던 소년 가가

와 도요히코는 혼자 숲과 들판, 창고 등에 숨어 종일 책을 읽곤 했다. 그때의 경험이 외로움과 상실, 혐오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공감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중학생 시절 외국인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 만남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타야마학교에서 만난 미국 남장로교 소속 찰스 로건 선교사에게 예수의 생애를 배웠고, 마이애스 선교사 부부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자라면서 받은 사랑이라곤 부모 생전 짧게 받은 게 전부였던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제2의 부모 같은 존재였다. 선교사들에게 신앙과 지식, 가정과 가족의 의미, 감정의 교감, 이웃사랑 등을 깊이 배운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학비를 대주던 숙부에게 도쿄제국대학 입학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도쿄의 장로교계 대학 메이지가쿠인대학 고등부 신학예과에 입학했다. 기독교 사역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란 책은 모두 섭렵했다. 신학, 문학, 철학, 자연과학, 역사, 농학, 예술 등 여러 분야 책을 빠짐없이 읽었다. 그를 가르친 라이사워 박사는 “메이지가쿠인대학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했다.

메이지가쿠인대학 신학예과를 졸업한 가가와 도요히코가 1907년 미국 남장로회가 세운 고베신학교(후의 고베중앙신학교)에 입학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고베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빚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치현 오카자키교회와 도요하시일본기독교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며 전도자로서 성장했다. 그때부터 대중집회와 거리 전도에 시간을 쏟으며 전도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걸려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병으로 고생하던 그는 어느 날 깊은 산골에서 가네자와교회 나가오 목사를 만났다. 그 만남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핏덩이를 토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를 나가오 목사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나가오 목사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 가가와 도요히코는 빈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고아, 학대, 천대받았던 경험, 중학교와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의 영적, 지적, 사회적 각성 그리고 고베신학교 시절 전도자 경험과 사선(死線)을 넘나들게 만든 병고가 그를 모든 경험이 뛰어난 전도자이자 헌신자로 만들어 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1909년 병고로 인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베의 빈민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세를 얻어 방화법, 도박중독자, 알코올중독자, 매독에 걸린 거지 등과 함께 살았다. 굴뚝 청소하면서 번돈을 빈민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나눠주고, 자신의 옷도 벗어줬다. 불량배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인과 아이들을 돌보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다. 자신의 집에 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국어와 산수를 가르쳤고, 초상집에서는 시신을 씻

고 장례를 집전했다. 주일에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1914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했다. 미국의 슬럼가와 노동 운동에서 시사를 얻어 1917년 귀국한 그는 고베 빈민가로 다시 돌아가 전도와 노동 운동을 펼친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노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농민 협동조합, 보통 선거권 운동 등 사회운동을 펼치며 일본의 사회 회복과 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사선을 넘어>, <새벽이 오기 전에>, <한 알의 밀>, <빈민 심리 연구>, <우애의 경제학> 등 수많은 저서도 남겼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10억 엔의 인세 소득을 사회운동을 위해 모두 기부하기도 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문학자, 학자, 저술가, 빈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협동조합 운동가로서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그는 일평생 자신이 전도자로 인식되기를 원했다. 실제로 그는 1960년 별세할 때까지 빈민촌에서 헌신적으로 전도하며 이웃들을 돌봤다. 일본의 변화와 회복을 꿈꾸며 빈민촌에서 평생을 바쳤다. 당시 그의 설교를 들은 기생들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만큼 그를 통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분명 평생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었다.

가가와 기념관(Kagawa Memorial Center)
주소: 5 Chome-2 20 Azumadori, Chuo Ward, Kobe, Hyogo 651-0076
홈페이지: core100.net

특파원 보고, 효고현의 기독교

고베개혁신학교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가 방문한 곳은 ‘고베개혁신학교’였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교정이 우리를 반겼다. 고베개혁신학교는 1947년 4월 일본 기독교개혁교회에 의해 개교했다. 현재 학생 수가 11명이 전부였고 올해는 신입생이 없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은 “크고 멋진 고베개혁신학교의 건물과 대비되는 작은 인원이지만, 그만큼 신학교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고베개혁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에서 선물과 찬양 특순 등을 준비했다. 선물은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간식거리와 물품들로 꾸러미를 만들었다. 찬양은 ‘GOD Bless You’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준비했다. 특순 시간이 감동이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본어로 부르고, ‘GOD Bless You’를 한국어로 부르는데, 고베개혁신학교 학생들이 같은 찬양을 화답가로 준비해 왔다. 화답가를 한국어로 준비해 와서 마지막 찬양은 서로를 축복하며 합창했다. 고베개혁신학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사, 사상과 품행이 방정해서 모든 것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부끄러울 것 없는 목자, 박해와 유혹, 빈곤에 굴하지 않고 겸허히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교의 비전처럼 많은 젊은이가 일본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김지희 권사
(서빙고 권사회장)

미카게신아이그리스도교회

나는 일본 유학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비즈니스 하고 있다. 나에게 일본은 익숙한 곳이다. 그런데 러브소나타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일본은 조금 특별했다. 사업적 시선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미카게신아이그리스도교회는 1950년 2월 16일 ‘히가시나다신아이기독교교회’로 개척했다. 당시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세워져서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했다. 지금은 청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다. 미카게신아이그리스도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교회가 무척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크리스천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일본인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알기에 더욱 감동이 있었다. 한 성도님이 수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하고 불편할 텐데 열심히 수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일본은 종교가 많고, 다양한 신을 섬기는 나라다. 풍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말라 있다. 이 나라에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미카게신아이그리스도교회와 일본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러브소나타가 일본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김화동 성도
(영종온누리교회)

“그 생명보다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인생네컷’ 204명 결신

순간 장소를 착각한 줄 알았다. 분명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인생네컷’ (이하 인생네컷)이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고급 레스토랑을 그대로 옮겨온 듯했다. 아주 예쁘게 장식된 원형 테이블이 65개나 놓여있었다. 본당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조명은 그야말로 백미(白眉)였다.

테이블마다 흰색 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이 ‘테이블리더’로 섬긴 것이다. 그 예쁜 테이블에 부모들과 자녀들이 앉기 시작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설렘과 웃음이 가득했다. 몰라보게 바뀐 본당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둘러보며 촬영하는 이들도 많았다. 본당 2층에도 부모들이 앉았다. 테이블에는 부모 한 명만 앉을 수 있었기에 다른 부모는 멀리서 지켜보며 중보기도했다.

정승호 집사(OCC공동체)는 해외에 있는 큰 아들과 막내딸을 초청했다.

“아이들이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인생네컷’과 날짜가 겹쳐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을 계기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분 집사(인천온누리교회)는 막내아들을 초청했다. 최경분 집사의 아들은 새벽기도를 함께 다닐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교회와 조금씩 멀어졌다. ‘인생네컷’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초청했는데 아들이 거부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오든, 안 오든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도 씨앗을 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이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반차를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새삼 체험했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발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부모들 사이에 젊은 자매가 보였다. 여동생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온 김유리 자매(양재온누리교회)였다.

“동생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붙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간절하게 동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함께 응원하고, 뒤에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동생이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영 장로(양천공동체)는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초대하는 인생네컷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했다.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매일 말씀을 한 절씩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바빠서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데려와도 낮설어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인생네컷’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네컷’에 초청했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인생네컷’에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차원에서도 자녀 맞춤전도집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네컷’에서는 눈에 띄고, 가슴을 울리는 장면들이 참 많았다. 무대에서는 DJ PLASTIC KID의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봉사자 60명이 부지런히 테이블을 오가며 살뜰히 식사를 챙겼다. 테이블리더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테이블리더 편인영 자매(SNS청년부)는 섬기면서 20살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한다. 편인영 자매도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친언니 권유로 온 서빙고온누리교회 대학부에서 다시 성령님을 만났다.

“저와 같은 신앙의 방향을 하는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공간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는데 다행히 부모님과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섬기는 자리는 언제나 그렇듯 은혜가 큼니다.”

가수 번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밴드 CRUX가 공연도 참 멋있었다. 유명 콘서트가 전혀 부럽지 않았다. 참석자 모두가 환호하며 ‘인생네컷’을 즐겼다. 유튜버 박유 형제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다. 그가 담담히 고백하는 간증에 부모와 자녀들이 눈물을 보이고, 때로는 웃으며 공감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 생명보다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인생네컷’의 하이라이트는 부모가 자녀에

게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었다. 부모들이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읽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녀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모들이 편지를 읽을수록 자녀들의 눈물이 굵어졌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다. 테이블리더가 결신서를 나눠줬더니 자녀들이 거침없이 결신서에 이름을 적었다. 부모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을 두드리며 고맙다고 고백했다.

이은옥 성도(강서공동체)의 딸 이소현 자매는 엄마의 편지를 받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주말에 일부러 일하며 교회를 피했는데... 엄마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엄마의 편지에

놀랐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박유진 권사(천양사역공동체)는 아들 김예담 형제를 초청했다. 평소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인생네컷’이 그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줬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전도하는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예담 형제도 ‘인생네컷’에 온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고백했다.

“모처럼 엄마랑 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를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읽고 싶습니다.”

‘인생네컷’에 초대된 자녀 20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엄마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세은아. 이번 2030 자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에 세은이를 초대하고 엄마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우리 이쁜이가 안 온다고 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이야기하지?’,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손편지를 쓰게 되었어. 근데 화도 안 내고 오겠다고 해서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 살짝 튕기기도 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세은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은아! 바로 코앞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대학교를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출퇴근 시간 겹칠 때도 많은데 다니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 엄마가 예전에 몰라줘서 미안해.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진짜 세은이가 기특하고 장해.

세은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엄마가 원하니까 와서 이렇게 함께 하니 너무 좋고 행복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혼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는 이 세상 끝날까지 세은이 편이고, 세은이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세은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전하고 싶어. 오늘 파듯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은아 우리 막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 언니랑 가깝게 살면서 자주 놀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하고 또 사랑해.

/ 엄마 정현주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경제 정의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하는 이유



정운오 장로
(동작공동체, 경제정의
팀 담당장로)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공의’ (미쉬파트 또는 짜데카)와 ‘사랑’ (헤세드)이다. 헤세드는 사랑 외에도 긍휼, 인자, 자비로도 번역되며,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난다. 많은 성도에게, 특히 탕자처럼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에게 신앙 초기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요일 4:7~21) 느껴진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수록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에 자연스레 눈뜨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얻은 ‘칭의’로만 이해되어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의 실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종종 괴리된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공의와 크게 상반없는 걸까?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의 삶에 별 영향을 못 준다면 그의 신앙은 반쪽짜리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도라면 아직 어린아이같이 은혜만 구하고, 공의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너

희 하나님 여호와와 ...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미쉬파트)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7~18),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미쉬파트)와 공의(짜데카)를 따라 행하며 ...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빚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렘 18:5, 7), “...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렘 22:3)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구체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과 같

유 있는 가까운 친족이 되사주거나 그렇게 못 하면 희년이 될 때 되돌려 받음으로써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을 방지하셨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신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채탕감, 기업 무르기 등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가난한 자가

물적, 경제적, 영적 해결 방법을 지원하고, 소망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빚더미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괴로움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빚더미에 앉고 나면 인격도 없어지고 인권도 사라진다. 글자 그대로 빚진 죄인이 되어 온갖 수모를 겪게 된다.”

젊은 시절 남양만에서 농민 목회를 하다 큰 빚을 지게 된 김진홍 목사의 말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2023년 접수된 1,361건의 파산 신청 사례를 분석했는데, 채무 발생 원인 1위가 ‘생활비 부족(48.8%)’이었고, 2위는 ‘사업 실패(21.5%)’, 3위가 ‘빚보증과 사기 피해(13.2%)’로 나타났다. 채무액도 1억 원 미만이 23.4%를 차지했고, 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 보유 자산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91.3%에 달했다. 이 통계자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가리킨다. 가난과 빚으로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격마저 몰수당한 채무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물질적 필요만 돌보는 게 아니라 궁핍한 이웃이 직면한 경제적 고통도 돌보는 게 마땅하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팀 켈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한다. 마지막 때 재림예수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도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마 25:31~46)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물질적 필요만 돌보는 게 아니라

궁핍한 이웃이 직면한 경제적 고통도 돌보는 게 마땅하다.”

은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살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공의의 실천을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 지침을 주셨는데, 구약에 나타난 부채탕감(신 15:1~2, 이삭줍기(레 19:9~10), 기업 무르기(레 25:23~28), 희년(레 25:8~55) 등이 그것이다.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꾸줄 때 이자를 못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은 모두 탕감해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이 고질적인 장기부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으셨다. 추수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곡식을 거두지 않아 가난한 이웃이 남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집안이 가난해져 부득이 자신의 기업인 땅을 팔았다면 여

전혀 생기지 않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 도적질, 강도, 사기, 살인, 자살 등이 사라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림이 임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많은 이유가 어찌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공의 실천하는 경제정의팀 ‘부채탈출 119’

경제정의팀의 주요 사역인 ‘부채탈출 119’는 오랜 시간 갚지 못한 과중한 빚 때문에 살소망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상담을 통해 법

사역칼럼



허정윤 집사
(경제정의팀 부채탈출
119 상담사)

나는 경제정의팀이 시행하는 ‘부채탈출 119’ 프로그램 상담자로 사역하고 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의 문제에 맞서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해 줄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여러 차례 사전 상담 교육을 통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첫 상담 직후 내담자의 재기를 도와주고, 승리의 깃발

을 꽂겠다던 나의 씩씩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몇 주 동안이나 마음이 힘겨웠다. 부채상담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담자의 과중한 빚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닌 가정 전체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원망, 미움, 죄책감, 억울함, 죽고 싶은 충동 등을 다뤄야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담자가 과중한 채무를 지게 된 사연은 정말 다양하다. 2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두 아들을 장성하게 키웠지만, 그동안 조금씩 쌓인 부채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었던 내담자, 사기 피해를 보고 빚을 지게 된 내담자, 돈을 빌려 시작한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해 큰 빚을 진 내담자,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자기 소득보다 많은 채무를 짊어진 내담자,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를 잃은 프리랜서, 부친의 사업 실패로 청소년기에 시작한 치아교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음식 섭취가 어려웠던 내담자도 있었다.

부채 문제는 사업 실패, 실직, 사기 피해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무절제한 소비지출, 게임중독, 돈 욕심으로 빚내어 시작한 주식 투자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도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괴감과 죄책감을 동반하므로 문제를 선뜻 드러내지 못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부채에 억눌리면 타인과의 대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에 걸리기 쉽다.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해결책이 전혀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체념한다.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한없이 자라난다.

그래서 부채상담의 첫걸음은 내담자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1회차 상담 이후 2회차 통화를 할 때 내담자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절실한 또 다른 도움은 건강한 소비생활과 효과적인 재정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다. 경제생활에서 맘몬의 영향을 비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절실하다. 부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들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 머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홀로 다시 현실과 직면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늘도 나는 홀로 부채와 씨름하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부채탈출 119’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사 30:26).

부채탈출119의 역할과 사명

맛있는 말씀 해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함으로라”(눅 1:4)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저술 의도가 나온다.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술한다.

복음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에디오피아 내 시에게는 집사 빌립의 풀이가 필요했고(행 8:26), 소년 사무엘에게는 제사장 엘리의 조언이 필요했으며(삼상 3:1~9), 철학의 도시 아테네(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전도자 바울의 해석이 필요했다(행 17:16~34). 데오빌로가 복음을 건고하게 이해하는 데는 누가의 역할이 컸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홀로 깨달을 수 없다. 우리는 동역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다. 묵상과 나눔의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쳐야 지혜가 예리해진다”(잠

27:17).

“우리는 언제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다”(《사람을 안다는 것》 318쪽).

대화하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뤄진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격언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보자. 시각장애인들끼리 서로 만진 부위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코끼리의 실체가 대략적으로 파악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깨달은 점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데오빌로에게 복음 설명이 가능한 까닭은 이미 배운 말씀의 교훈이 그에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릴지 전혀 구상하지 않은 데다가 그릴 재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도화지에는 의미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엇을 그릴지 명료하지 않아도 복잡한 생각이라도 하고 있고, 그릴 재료가 준

비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데오빌로는 이미 들은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 있는 그림이 그려질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필자의 아들(5세)이 책을 읽으면서 “뱀딸기는 뱀이 먹어서 뱀딸기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뱀딸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듯이, 질문과 의문으로 그릇을 넓혀서 준비해야 의미 있는 신앙적 답변이 담길 수 있다. 데오빌로는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 있는 상태였다.

누가 전한 복음서로 인해 데오빌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행 1:1).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누가복음>에서 누가 데오빌로를 지칭했던 ‘각하’라는 단어

가 없다. 복음서를 쓰기 전에는 누가와 데오빌로가 다소 경직된 관계였다. 하지만 복음으로 대화하면서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사회적 지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가와 데오빌로가 친구가 되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해서 그에게 접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다가간 덕분에 복음의 결실이 맺혔다. 데오빌로 역시 ‘각하’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낮게 여겼다(빌 2:3).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이 건실해질 때 우리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된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사명의 사람과 탐심의 사람

5월 20~26일
<열왕기상> 19:1~21:16



묵상포인트 1:

인생에서 누구나 좌절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두려움과 절망의 때에는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한다. 회복

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연약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하자.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에 대해 듣는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 로렘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한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음식을 먹이신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만에 호렘산에 이른다.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가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며, 바알을 섬기지 않은 거룩한 7천 명을 남긴다고 말씀하신다. 엘리야는 발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져 그를 후계자로 삼는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비록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모르는 아합을 대조해 묵상하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합을 협박한다. 아합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을 도우신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군대를 계수해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긴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다음 전쟁을 대비하게 한다. 벤하닷은 다시 북이스라엘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아합에게 하나님 찾기를 촉구하신다. 벤하닷과 신하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 달라고 아합에게 청하자,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가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이 멸하신 사람을 놓아준 아합을 책망하며 그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한다.

묵상포인트 3: 불순종의 사람은 작은 탐심조차 버리지 못한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권력자의 탐욕이 무고한 살인이라는 죄악으로 이어진다. 탐욕으로 악을 행하는 권력자,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묵상하자.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

도원을 탐낸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제안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며 청을 거절한다. 아합이 이 일로 근심하고 답답해하자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돌려 쳐 죽인다. 나봇이 죽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영적, 육적 탈진을 겪을 때, 무기력으로 절망할 때 나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소망하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 사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하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단호한 결단과 용기로 응한다.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정리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자.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불신의 사람이었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기로 하자. ▶신실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그분께 나아오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자. ▶탐욕으로 죄짓지 않도록 나 중심적인 욕심과 아집 버리기에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고백교회를 위해서!

도시미자립교회 지원팀에서 돕고 있는 고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고백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주일에는 개척준비 중인 교회와 장소를 공유합니다. 예배당을 공유하는 사역이 계속되도록,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고백교회에서는 은행 대출이 안 되는 어려운 가정에게 무이자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안은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가정에 대출을 했고, 현재 6가정이 전액 대출 상환을 완료했으며, 두 가정이 상환 중입니다. 대출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도들을 비롯한 후원자 30명을 모아서 10만 원씩 대안은행에 입금하고, 그 자금을 대출금으로 이용합니다. 대출자가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환급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한 대안은행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고.

현재 고백교회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은 목사님 가정과 교회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는데, 코로나19 기간 폐업 위기에 놓였던 이웃을 돕기 위해 매매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차량을 구매하도록, 이웃을 더욱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문의: 010-8227-9751

/ 국중대 집사(도시미자립교회 지원팀)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



사진은 지난해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가 오는 6월 3~4일 열린다.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을 주제로 6월 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양재동 The-K호텔에서 진행된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는 3일 이재훈 위임목사, 최진호 교수(미국 에모리대학교), 김도균 대표(Cloudflare 한국지사장)가 강의한다. 4일에는 콘퍼런스 선택강의가 열린다. 이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 CGN 제작기술실,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에서 강의한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 5월 19일까지 참가신청하면 5만 원, 20일부터 30일까지는 6만 원, 현장 등록은 8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75-937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

5월 25일 오후 12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이 5월 25일(토) 오후 12시 온누리 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온누리 사회선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역사 설명, 대학청년 사회선교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체 1다락방1사역 사례 발표 및 시상, 특강, 미래전략 패널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

강은 이재훈 위임목사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의 나아갈 길', 임희국 교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선교'를 주제로 한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름, 직분, 출석교회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청소년반 6월 1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는 태국 치앙마이로 청소년반 아워리치를 갈 예정이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다. 회비는 1인당 12만 원(부부가 등록하면 20만 원, 청소년 추가 1인당 8만 원)이다. 문의: 02-3215-3532, 010-6476-0524

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2000선교본부 '선발대' 프로젝트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에서 '선발대(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선발대 프로젝트는 올해 여름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다. 6월부터 8월까지 최소 2주 동안 선교사들에게 국산 준중형 이하(아반떼, K5, 레이 등) 차량을 대여해 주면 된다. 선발대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하

단 QR 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24년 현재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71개국 869명이다.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병원 진료, 가족 방문, 사역 보고, 국내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문의: 010-2822-9970(재능기부팀장)



안산M센터 '이음한국어교실' 입학식

9개국에서 온 학생 22명 입학

안산M센터 '이음한국어교실' 입학식이 지난 5월 9일(목) 있었다. 9개국에서 온 학생 22명이 입학했다. 학생들은 이음한국어교실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원래 소속된 학교로 돌아간다.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뿐만 아니라 믿

음의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음한국어교실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김다예 기자

화성M센터를 도움시다!

화재 피해를 본 화성M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달 화성M센터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배당과 예배 장비, 물품 등이 크게 훼손됐다.

문의: 010-9958-6532

계좌: 하나은행 726-910027-80104(화성온누리M센터)

제10회 열방탁구 축제 개최

스포츠 선교 활성화와 선교지 후원을 위한 '제10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가 오늘 6월 6일(목) 열린다.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모든 성도, 교역 제10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에서는 김홍주 목사(이천선교본부장)가 메시지를 전하고, 양영자 선교사(88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가 특별게스트로 참여한다.

문의: 010-8761-4178

166기 서빙고 큐티 스쿨 참가자 모집

큐티를 체계적으로 배울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166기 서빙고 큐티스쿨'이 그것이다. 서빙고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만 원(교제 포함). 참가신청 6월 7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8378-5307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 인천온누리교회가 함박웃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려인 240여 명과 함박마을 주민 30여 명, 인천온누리교회 성도 170명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기쁨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262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6월 1일부터 신길교회 그레이스홀

262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신길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린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30만 원.

262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하나 됨의 비밀, 성', '신혼, 재정의 첫걸음' 등을 주제로 임항재 목사, 송홍섭, 박세나 부부강사, 김의수 센터장, 박은정 센터장, 김숙경 소장이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내년 1월 24일(금)부터 2월 4일(화)까지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종교개혁사를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세계사와 교회사를 주제로 류모세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4902-1022

5월 세례 명단

허브	천용범 980623	-유아
김도현 010521	-입교	
박준민 000606	강예일 980129	김예지 231122
임승욱 990811	양예준 990201	김형준 임진영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품격 있는 풀꽃 인생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강렬한 햇살보다 눈이 부시게 하는 것은 오월의 ‘푸르름’이다. 푸른빛을 뿜어내지는 않지만, 초록의 대지연을 바라보며 그 푸르름에 눈이 부신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근성 있는 사람을 ‘잡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잡초는 산이나 들 그 어디서나 푸르게 자라나는 풀이다. 번식력이 왕성해서 다른 작물의 영양분을 뺏아 먹어 농부에게는 천대받는다. 가축을 방목해서 키우는 목초지에서는 배설물을 분해해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또다시 성장해서 동물들의 먹잇감이 된다. 잡초가 꽃이 피면 그게 풀꽃이고, 하찮은 풀꽃이라도 소중하게 보인다면 그것이 나의 꽃이고, 너의 꽃이다.

잡초의 대장감은 민들레다. 밭에 밟혀도 거침없이 솟아나고, 거칠고 메마른 땅을 비집고 나와 역세고 질겨서 무언가에 저항하는 듯싶다. 어른들은 “인생은 민들레처럼 살아야 하는 거!”라고 속닥거린다. 그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지고, 특별하지 않아도 무수한 밭길에 짓밟히면서도 민들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도 잡초처럼 강인한 존재, 잡초처럼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 잡초처럼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풀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품격만큼은 높여 살았으면 좋겠다. ‘품격(品格, dignity)’은 사람 된 품성과 인격으로 본성적 자질과 함양된 가치이다. 여유롭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디서나 품위 있는 말씨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풀꽃 같은 인생을 더욱 격조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평생 주고 받는 말이 쌓여 그 사람의 인격이 되듯이 품격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와 소통

하고, 인생의 경륜을 나누며 공동체로 살아간다.

우리 사회의 품격은 어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내 입맛에 맞게 덧칠하거나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말에 색깔을 덧씌워 우기고 싸운다.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민주주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말’이 넘쳐나서 문제다. 색종이도 접어야 종이배가 되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가 된다. 접히는 배려와 양보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대답하는 극단이 알맞게 접어야 더 좋은 쓰임새로 펼쳐질 수 있다. 자기 의(意)를 반만 접어 양보해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나의 품격은 어떻게? 짧은 대화에도 저급한 언어와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남을 향한 험담이 문제다.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듣는다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말에도 쉽표와 마침표가 있으면 좋겠다. 적절한 쉽표가 몇 마디 말보다 큰 울림이 될 수 있다. 말의 품격은 화려한 기술보다 잘 듣는데 있고, 절제할 줄 아는 말이 품격을 더한다. 품격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이 되게 하고, 매사 염치를 알고 깨달아 인간성이 넘쳐나게 한다.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는 “품격과 지혜는 세상의 모든 부를 뛰어넘는다”고 했다. 품격 있는 풀꽃 인생으로 겸손과 절제, 배려와 양보가 살아나 인생의 깊이를 더 했으면 좋겠다. 말의 담론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 21:23).

권사칼럼

더 블레싱 콘서트, 못다 한 이야기

김수진 권사
(맘앰맘스 팀장)

지난달 양재온누리 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맘앰맘스 더 블레싱 콘서트에 초대받은 싱글맘과 자녀들이다. 활짝 웃는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줄이며 콘서트를 준비해 왔던 모든 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행사에 엄마 96명, 자녀 82명이 참석했다. 싱글맘 참석자 4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23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다.

행사가 은혜로 끝났지만, 못다 한 이야기가 참 많다. 무대 뒤에 숨겨진 이들의 이야기 말이다. 맘앰맘스 더 블레싱 콘서트는 지난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봉헌해 주신 비전현금으로 준비된 행사다. 싱글맘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품이 더 블레싱 콘서트로 열매 맺었다. 비전현금을 받게 된 과정도 은혜였다. 맘앰맘스 팀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도제목이 싱글맘들을 전도하는 것이었다. 싱글맘들의 자립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시작한 사역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으로 열매 맺어야 하기에 늘 그들에게 복음 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엄마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기도하는 중 우리 엄마들을 위한 비전현금이 봉헌되었고, 마침내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도침회를 기획할 수 있었다. 엄마들을 위해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교회에 무척 감사했다.

더 블레싱 콘서트를 위한 사랑과 관심, 중보기도,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마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맘앰맘스 자원봉사자들은 몇 주 동안 매일 밤 9시 앞드려 통성기도회를 가졌다. 양재온

누리교회 권사님들의 기도도 정말 뜨거웠다. 행사가 시작되기 4시간 전부터 김밥 한 줄 드시며 기도해 주셨다. 행사가 시작된 뒤에도 엄마들 바로 뒷자리에 네 줄로 나뉘 앉아서 내내 기도해 주셨다.

허브대학부 청년 55명의 섬김은 감동이었다. 엄마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봄, 식사 섬김, 예배당 안내 등을 담당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 모른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한 미소를 지우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귀했다. 더 블레싱 콘서트는 성인공동체와 청년공동체가 연합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잔치였다. 콘서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엄마 나도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다니는 교회 갈래!”라고 말했다는 피드백도 들려왔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한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양재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간사님들 덕분에 좋은 장소에서 행사할 수 있었다.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 목사님과 간사님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늘 엄마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맘앰맘스 팀원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맘앰맘스가 또 다른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신청했던 엄마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다. 엄마들이 사는 지역 교회를 맘앰맘스 팀원들이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있다. 엄마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동행할 생각이다. 신앙 안에서는 어린아이인 엄마들을 위해 맘앰맘스가 신앙의 엄마가 되어주고자 한다. 이 외에도 힐링캠프 등 후속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엄마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그리스도의 대대적인 증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강은수 목사
(제이훅 담당)

복음으로서의 입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해준다. 사명으로서의 입양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의미한다.

입양은 힘없고, 버림받은 이들을 대변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복음의 의미에 더욱 집중할수록 고아를 향한 우리의 부담이 커지고, 입양에 우호적일수록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입양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다. 그래서 입양은 우리 모두와 관계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 88:5)”라

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마 25:40).

복음은 우리가 새롭게 입양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롬 8:15).

우리는 전혀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다.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가족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받았고, 그들 중 다수가 부모 형제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을 혈연적인 가족의 인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주셨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정체성,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셨다.

입양은 복음이다!

입양은 단순한 자선 행위 이상이다. 영적 전투다. <출애굽기>의 바로와 복음서의 헤롯, 이 두 독재자는 아기들을 죽인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탄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다치게 한다. 새 생명을 파괴하고, 믿음의 자손을 죽인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자선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고, 우리도 입양을 통해(교회와 지역사회에 입양 문화를 장려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 각자의 삶과 상황, 가진 것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개

인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할 믿음의 열매다. 우리 교회가 입양 문화를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입양되는 아이들이 생명 가치를 누리며, 버림받은 아기가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상상을 해보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입양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닮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은 고아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빚고 계신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워어 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화신이 되어 세상의 고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명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010-9249-4906

CGN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 그 생생한 감동을 책으로 만나다!

홍정길 · 이동원 · 조용성 · 이규현 · 이재훈 · 차인표 · 정지훈 **적극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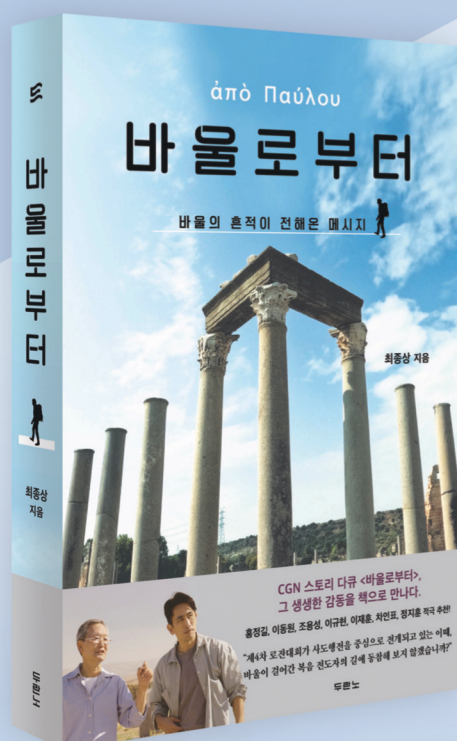
ἀπὸ Παύλου

바울로부터

바울의 흔적이 전해온 메시지



제4차 로잔대회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때,



바울이 걸어간
복음 전도자의 길에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 연대기 순으로 쓰여진 최초의 바울의 선교 여정기
- 바울의 선교 여정을 고스란히 담은
가장 최근의 현지 사진(전면 컬러)
- 바울의 1-4차, 로마행 등을 담은 다양한 지도와 삽화
- CGN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 <심화 강의> QR코드 수록
- 소그룹을 위한 <바울로부터> 워크북 수록

최종상 선교사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오엠선교회 소속 로고스 선교선과 돌로스 선교선에
승선하여 세계 87개국 156개 항구도시를 순회하며 선교했고, 유색인 최초로 돌로스 선교선 단장을 역임했다.
영국에 이스트버리(영국인)교회를 개척해 담임했고, 암노스유럽선교회를 세워 영국과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사역했으며,
현재는 암노스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런던신학교와 동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지도교수와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구원으로 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임을 논증한
박사학위 논문은 로마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세계 신약학계의 극찬을 받았다.

신청하기 & 자세히 보기



최종상 선교사
출간 기념
북 토 크

CGN X 두란노

다큐에 다 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목회 철학!
최종상 선교사 <바울로부터>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24. 6. 6(목) 오후 3시 ~ 5시
- 장소 |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8)
- 신청 기간 | 5. 8(수) ~ 5. 29(수) • 초대 발표 | 5. 31(금) / 당첨자 개별 SMS 공지

바울의